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심의관 김창식, 서기관 김지훈
(044-200-2135)

「아라오스」 페루 제2부통령 면담

- 이낙연 국무총리는 6.30.(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참석차 방한한 「아라오스(Araoz)」 페루 제2부통령과 면담하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확대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 총리는 양국 관계가 FTA 협정 발효 및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구축 등 다각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아라오스 부통령의 금번 방한을 계기로 중남미 지역 핵심 협력국인 페루와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 아라오스 부통령은 금번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참석차 방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페루는 한국을 가까운 동반자로 느끼고 있고, 특히 지난 10여년간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오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엘니뇨 피해 복구를 위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지원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하였다.
- ※ 2017.3월 페루의 엘니뇨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 30만불, 페루 한인회·민간기업 등 60만불 복구 지원

- 양측은 양국간 실질협력이 교역·투자 및 자원뿐 아니라, 지하철 건설 등 인프라, 방산, 보건의료, 전자정부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상호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 하에 이와 같은 실질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우리의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및 페루의 국제해사기구(IMO) 이사국 진출과 관련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APEC 및 OECD 등 여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